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트마리
파견대학	ALGOMA	기간	3주(21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ALGOMA 대학교는 토론토를 경유하여 수세인트마리라는 작은 마을에 있다. 이 마을은 정말 안전하고 마음이 따뜻한 분들만 사는 그런 곳인 것 같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도와주려하고 눈만 마주쳐도 밝게 인사를 건네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학교는 대부분 홈스테이 집과 그리 멀지 않게 위치해있다. 홈스테이 집이 다 달라서 학교에 오는 방법이 모두 다르지만 집에서 걸어오는 학생, 홈스테이 부모님이 데려다주시는 학생, 버스를 1번만 타고 오는 학생, 버스를 2번 타야하는 학생 등 다양하게 홈스테이 집이 위치해 있다. 첫 날에 학교를 둘러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전체를 둘러볼 수 있으며 이 시간에 학교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는 크지 않다. 학교 내의 시설은 깔끔했고 삭막한 분위기가 아니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강하다. 또한 학교에는 유학생이 엄청 많았다. 그래서 유학생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첫날에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2개의 반으로 나누어진다. 대부분의 모든 활동은 같이 진행하지만, Grammar, Listening 수업 등은 2개의 반이 수업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난이도도 차이가 난다. 수업은 학생들이 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서 하고 수업을 따라가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다. 과제는 3주 동안 1-2번 정도 있었는데 모두 혼자 알아서 쉽게 풀 수 있는 과제였다. 수업에 들어오는 선생님들의 열정이 엄청나기 때문에 재미있고,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말하는 시간도 많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스케이트 타기, 스키 타기, 봉사활동, 알파카농장 가기, 개썰매 타기, 모카신 만들기, 하키게임 보기 등 수업 외에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추가비용은 없으며 체험을 하고 난 뒤 기념품을 살 수 있는 시간에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경우에 쓰는 돈만 필요하다. 스키바지는 대부분의 홈스테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홈스테이를 배정받고 나서 스키복을 빌릴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방수가 되는 장갑, 부츠, 털모자, 목도리는 정말 필수다. 가끔씩 -30도 이상으로 온도가 떨어지는 날에는 머리카락이 다 얼 정도이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탄다면 핫팩, 히트택, 바지 안에 있을 수 있는 레깅스 등등을 챙기는 것이 좋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대부분의 날씨가 -20~-30도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추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 밖에 나가면 머리카락이 그냥 눈으로 변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핫팩을 거의 매일 사용하였고, 잠을 잘 때에도 레깅스를 입고 위에 바지를 입고 잘 정도였다. (대부분의 홈스테이 집이 난방을 한국처럼 따뜻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잠옷은 따뜻한 걸로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어느정도 추위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7도만 되도 따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눈이 정말 자주온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현지 안전은 정말 안전한 것 같다. 하지만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어두운 곳이 있기 때문에 구글맵을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며 가끔씩 버스 승차구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잘 확인해야한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0)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내가 배정받은 집은 아이들이 있는 집, 개가 있는 집, 남녀가 같이 사는 집, 교회를 다니는 집 등등으로 홈스테이 설문지 그대로의 집으로 배정받았다. 따라서 홈스테이 설문지를 작성할 때에는 정말 꼼꼼히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내가 사는 집이 시끄러운 것이 싫다면 아이가 없는 집 등 최대한 자세하게 적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홈스테이를 배정받고 나면

	최대한 많은 대화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은 것 같다. 한국에서 어떤 것을 들고 가야하는지(샴푸, 린스, 드라이기, 수건 등등), 집의 가족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묻기 보다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하면 좋을 것이다. 홈스테이 집에 가서는 집에서 지켜야할 규칙에 대해서 물어보고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아침식사는 알아서 먹어야 하는지 등등 절대 실례가 아님으로 궁금한 것은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0) 외부식당 (0)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홈스테이 집에서 항상 점심을 많이 싸주셔서 부족함 없이 잘 먹었다. 다만 자신이 한 가지 음식을 오래 못 먹는 다면 홈스테이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 한국음식을 싸와서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것 또한 재미있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내가 살았던 홈스테이 집과 학교는 15-2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으며 도보 10분을 걸어서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후 5분 정도 버스를 타고가면 학교에 도착했다. 하지만 근처에 사는 친구 홈스테이 부모님께서 같이 데려다 주셔서 편안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수세인트마리의 버스는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어렵지만 1-2번 타고 다니다 보면 버스를 타는 법은 정말 쉽다. 또한 버스가 얼마 없는 대신에 정확한 시간에 정류장에 온다. 평소에는 1시간에 2대 주말에는 1대 이기 때문에 버스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쇼핑센터나 Downtown은 버스로 갈 수 있으며 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출국 전 사전 납부
항공료		1,715,000원
여행자보험		23,600원
환전		50만원->550\$
유심		53,200원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파견 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활동수기들을 꼭 읽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출발하려고 하면 어떤 것을 챙겨가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것일 무엇인지에 대해여 모를 것이다. 어느 정도 수기를 본 후 짐을 챙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캐나다의 1월달은 엄청 춥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탄다면 핫팩을 15-20개 정도 챙겨가는 것이 좋으며, 나는 발바닥에 붙이는 핫팩 몸에 붙이는 핫팩 등을 가져갔다. 운동화는 정말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발목까지 오는 부츠, 종아리까지 오는 부츠 등을 챙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스키복은 미리 홈스테이와 연락을 한 후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때 챙기는 것이 좋다. 양말은 여유롭게 많이 챙겨오는 것이 좋으며 히트텍, 레깅스, 내복 등등 방한 용품을 챙겨오는 것도 좋을 것이다.

홈스테이와 연락을 많이 하고 소통을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다. 그들에게 나의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내가 먹지 못하는 음식들, 나의 성격, 나의 가족 구성원, 공통점 등등을 얘기하면서 친해지는 것도 좋다. 내가 살았던 곳은 아니었지만 화장실을 10분동안만 쓸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타월을 사용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일주일동안 한 타월을 사용하는 것이 찝찝하다면 집에서 자신의 수건을 가져오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스터-비자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챙기는 것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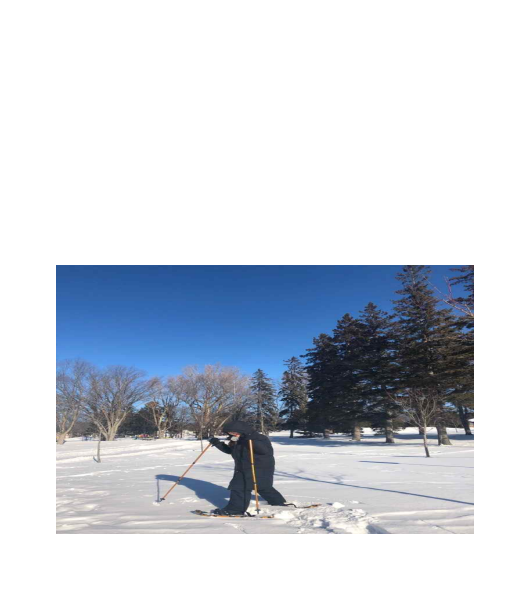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한국에서 캐나다를 떠날 즈음에는 3주가 너무 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의 하루 하루를 보내면서 3주는 너무 짧았고, 일주일만, 하루만 더 있고 싶은 곳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 선생님들, 홈스테이 가족들 모두가 친절했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또 다른 정과 문화를 느낄 수 있었고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지내면 지낼수록 익숙해져갔고 마지막쯤에는 이들의 문화에 빠져있었다. 나는 절대 홈스테이와 헤어질 때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떠나는 날엔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오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고 나를 3주동안 진심으로 대해줬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단기어학연수를 통해 영어를 더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말은 알아듣지만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버벅거리면서 하는 내 자신이 창피해졌기 때문이다.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알파가 농장 (사료주기 체험)	개썰매 타기
	
스키 타기	하키경기 보기
	
스노우 슈잉	눈 온 풍경